



6면
올 첫 민생경제 원탁회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음 6월 11일) 제33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잰버리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행을 만나 성공적인 대회 개최 등에 의견을 나눴다.

새만금 잰버리 성공 개최 與 지도부와 힘 모은다

김관영 지사, 김기현 국힘 대표와 잰버리 현장 점검
“새만금 전세계에 알려 성장 동력 근원지 만들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7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잰버리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국민의힘이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잰버리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성사됐다.

이날 국민의힘 현장점검에는 김기현 당대표, 김병민·김가람·조수진·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송상현 홍보본부장, 김예령 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서 진행된 잰버리조직위의 시설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김기현 당대표는 “국제행사인 잰버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전북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당에 요청하는

바가 있으면 특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진정성을 갖고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새만금지역과 특별자치도를 대표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관영 지사는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겠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잰버리스카우트대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근원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잰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50여개국 4만5,000여명의 세계스카우트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내려진 호우 중에서도 민방위 준비를 갖추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역 맞춤형 정책교류회

전북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1층)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기술개발 사업과 인재양성 확산 등을 위한 2023년 전라북도-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교류회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정보통신 연구개발 분야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문형돈 기술혁신본부장 등을 초청해 전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추진 전략과 중점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대학을 비롯해 연구기관 등 9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내 교원단체들 “더는 이런 비극 없어야”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보호대책 마련’ 촉구

서울 모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와 도내 6개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중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연합,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도내 교원단체들과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후 도내 6개 교원단체는 이날 발표한 교원보호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라는 전북교원단체 연합 요구서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이들이 요구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학교민원처리 방식에 대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학교로 전화했을 시 자동 연결되는 ARS에서 통화내용 녹취 고지, 실명인증 후 학교 교무실과 연결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전자민원창구 개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내용 담은 요구서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전달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 현황 의견 수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적으로 교원침해 현황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자료도 제작해 신규교사 연수나 1급 정교사 연수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파소당한 교사들이 경찰 무혐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즉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파소당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과정에서는 전북교원 공개회를 이용할 것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 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업무 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교원보호관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2학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안심번호 서비스, 녹음기와 같은 교원인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교원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한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기입 등을 교육부에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4주 연속 증가세

전북지역 코로나19 증가세가 4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만2,722명(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23년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는 5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7월은 1일 평균 951명으로 4월 평균 394명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의 방역완화 정책과 무더위, 장마철에 따른 에어컨 가동

증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와 호흡기감염병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627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